

<p>8/13/12 (월) 눅 1:5-25 your petition was heard</p> <p>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모든 계명을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으나(5-6),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7) 스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려 갔을때(역대상 24:3-19), 어느날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도록 뽑혀서 들어갔을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합니다.(8-13) 그 간구는 그들에게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것이였을것입니다. 그들의 간구대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것이라고 합니다.(13)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이미 나이가 많아 그 말을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18) 사가랴는 간구해놓고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그렇다면 그 간구를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능하다고 할때 한것일까요? 내가 간구하면서도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하던, 아주 오래전에 했던 간구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것입니다. 내가 구하는것이 하나님 말씀안에서 구하는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것을 믿고 간구해봅시다.(요 15:7)</p>
<p>8/14/12 (화) 딤펢전 5:1-2 Do not rebuke an older man but encourage him as you would a father</p> <p>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나이든 남자 성도이 혹시 잘 모르거나, 올바르게 못한 행동을 할때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권해드리듯 대하라고 합니다.(1) 마찬가지로 젊은 형제들을 자신의 형제처럼, 나이든 여 성도를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 성도들은 자매처럼 대하되, 일절 깨끗한 자세로 대하여야 한다고 명합니다.(2) 교회안의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보기전에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연세가 드셔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잘 모르는게 있으시면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드립니다가? 내 형제, 자매가 잘못된게 있을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공동체안의 형제, 자매들을 내 친형제, 자매같이 아끼는 마음으로,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p>
<p>8/15/12 (수) 딤펢전 5:3-8 let them first learn to show godliness to their own household and to make some return to their parents</p> <p>참 과부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합니까?(3) 만일 과부가 된 사람이 자식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과부는 누가 돌봐야합니까?(4)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4) 교회에서 돌봐야하는 참 과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5) 향락에 빠져 사는 과부는 실제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6)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이 필요한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8)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것들을 가르쳐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7) 현대에서는 자신의 삶을 돌보기만도 벅차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친척, 특히 직계 가족을 돌보는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며, 믿는자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도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p>
<p>8/16/12 (목) 딤펢전 5:9-16 Let the church not be burdened, so that it may care for those who are truly widows</p> <p>참 과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9-10) 과부로서 선한 일로 평판이 좋은 예들이 무엇입니까?(10) 성도들이 받을 씻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은 과부들을 교회가 돌봐야할 과부 명단에 등록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1-13) 젊은 과부를 재혼 시키기를 권하는(14)는데, 교회에 등록된 젊은 과부가 결혼하는것은 왜 비난을 받을까요? (15) 믿는 여자 성도중에 과부가 된 친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16) 이렇게 교회에서 돌보게 될 참 과부 선정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6) 주위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진 헌금이 현명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까?</p>
<p>8/17/12 (금) 딤펢전 5:17-20 let the elders who rule well be considered worthy of double honor</p> <p>교회의 장로로서 잘 섬긴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17) 특히 어떤 섬김의 분야가 더 그렇습니까?(17) 이것은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18) 만일 장로가 잘못했다는 제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19) 잘못된것을 누우치지 않고, 계속 같은 죄에서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20) 왜 그렇게 해야합니까?(20) 믿음 공동체에서 잘 섬겨주고 계신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의 잘못함이 드러남을 보고 어떤 마음이 됩니까?</p>
<p>8/18/12 (토) 딤펢전 5:21-25 no not take part in the sins of others; keep yourself pure</p> <p>바울은 어떤 권위로서 디모데에게 당부한것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게 지키라고 합니까?(21) 손을 얹어 리더를 세우는것을 신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된 행동에 동참하지 말고 순결하라고 지시합니다.(22)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합니까?(23) 어떤 죄는 너무 명백하여 어떤 심판을 받을지 알지만, 어떤 죄들은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마지막이 되면 알게 되는것이 있듯이(24), 선한 일도 모두가 알게 되는 명백한것도 있지만, 당장은 드러나지 않은 선한일이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25) 나는 판단의 잣대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섞여 있다면 어떤 방법이 나를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죄 되는 있을 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선한 일이 드러나지 않을까봐 선한 일을 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p>

-----[jjKOSTA follow-up sharing web board](#)